

청와대 앞 밤낮없는 노숙농성

# 주민·시각장애학생 ‘지옥의 80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 “학습권·이동권 침해”  
한기총 “강제철거는 비인도주의적 행위” 맞서



서울맹학교학부모회와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무분별한 집회에 대한 대응 집회'를 열고 집회 소음과 교통 통제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맹학교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500미터 떨어진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로 무분별한 집회로 아이들의 학습권 등이 침해된다며 종로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와 종로구청 측이 청와대 앞에서 80일 넘게 노숙농성중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범투본)에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계고장을 보낸 가운데, 범투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충돌이 예상된다. 범투본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총괄대표를 맡아 이끌고 있다.

인근 주민들과 맹학교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수차례 탄원서까지 보냈음에도 범투본 측은 집회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며 철거를 시도할 경우 대규모 반발을 경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의 야간집회 금지 통보까지 무시하며 밤과 낮도 없이 평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불법 노숙집회에 인근 주민들의 삶은 물론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이들은 “강제철거는 비인도주의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따르면 20일 전후 북부도로사업소와 종로구청은 각각 차도와 보도에 있는 시설물을 범투본과 보도에 있는 시설물을 범투본에 철거해달라는 계고장을 보냈다. 특히 서울시는 22일 자정까지 철거해달라는 계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범투본은 이에 불응했다. 범투본은 22일 밤까지도 현 정부를 규탄하는 등의 예배를 하며 노숙농성을 이어나갔다.

범투본은 지난 10월3일 개천절 때 '문재인 하야' 결단식을 한 직후인 10월4일부터 이날까지 81일째 청와대 앞 효자로에서 천막 등을 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전날(22일) 밤까지도 범투본은 효자동 삼거리부터 경복궁역까지 300m 가량의 길이의 인도와 차도에 15개가 넘는 천막을 놓고는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너비가 5m 이상인 텐트 안에는 침낭과 담요 등 생활용품들이 가득

했다.

이들의 80여일 넘는 노숙농성으로 인근 주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근 지역 소재의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수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대국민행동국민운동본부(국본) 집회 참여자들은 학부모들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가하거나 “빨갱이”라고 붙여세우기도 했다.

전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학부모 김복순씨는 “시각장애인 아이가 경복궁역 방향으로 밥을 먹으러 가는 길에 ‘눈도 아픈데 왜 돌아다니냐’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며 “이것이 우리가 참다 못해 나선 이유”라고 토로했다.

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보행수업은 서울맹학교 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시각장애인은 생활환경을 크게 바꾸기가 어려워 졸업 이후에도 이 근처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근처 지형을 익힐 수 있는 청와대 주변 보행 연습도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졸업생 김모씨(30·여)는 “화성기를 이용하다 보니 소리가 사방에 울려서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지를 몰라 걷지를 규탄하는 등의 예배를 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전날(22일) 밤까지도 범투본은 효자동 삼거리부터 경복궁역까지 300m 가량의 길이의 인도와 차도에 15개가 넘는 천막을 놓고는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너비가 5m 이상인 텐트 안에는 침낭과 담요 등 생활용품들이 가득

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5일 단체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열지 말라고 통보했지만 범투본은 금지된 시간에도 집회를 계속 열고 있는 상황이다.

한기총 회원들과 범투본은 일요일인 22일 저녁 8시쯤에도 여전히 청와대 앞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예배를 강행하며 일대가 시끄럽게 마이클을 통해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다. 경찰이 옆에서 “소음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친다”고 경고 방송을 해도 단체 회원들은 소리를 지르며 아우하하며 예배를 이어나갔다.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는 22일 밤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집회의 자유에 따라서 수백명이 그 천막에서 먹고 자는 것이며 이불과 담요, 식량이 다 들어가 있다”며 “이런 천막을 훑히기에 철거한다면 서울시와 종로구청 관계자들은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용역이(23일) 오면 아마 심한 충돌이 일어날 것”이며 “오전부터 순국결사대가 (철거를 막기 위해) 대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종로구청 측은 22일까지 텐트 등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고 이들이 불응한 이상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처음에는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했지만 한기총이 응하지 않아서 계고장을 보낸 것”이라며 “22일까지 계고장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연락이 오면 구청도 철거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장흥군 장평면라이온스클럽 행복가득 ‘집수리 봉사’ 실천

장흥군 장평면라이온스클럽(회장 정병주)은 지난 18일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가구를 위한 집수리 봉사를 실시했다.

장평 라이온스클럽은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 집수리 봉사를 추진하고 있다.

면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접근성이 열악한 마을에 직접 찾아가 농기계 수리 봉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집수리 봉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찾는 장평면 맞춤형복지팀의

추천과 장평면 라이온스클럽이 연계되어 지원을 하게 됐다.

장평면 라이온스클럽은 회원 17명이 참여하여 집안에 쌓여있는 각종 옷가지와 물건 등 쓰레기를 치우는 대청소와 도배·장판 및 싱크대 교체, 쥐구멍 제거 작업 등을 펼쳤다.

정병주 회장은 “나눔을 몸소 실천해준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주위의 소외된 계층에 희망을 주는 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밝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더하겠다.”고 봉사의 소감을 밝혔다.

정홍-위지훈 기자

## 광주 첨단중, 김장나눔행사 개최



20일 광주 첨단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김장나눔 한마당' 행사를 열고 학교 텃밭에서 기른 배추로 담긴 김치 25박스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세대 등에 전해달라며 첨단2동 행정복지센터에

말 걸었다.

신인숙 첨단중학교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나눔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